



전세계 임산부 절반이상 빈혈 증세

전세계 임산부의 절반 이상, 가임연령에 있으나 임신 중이 아닌 여성의 3분의 1이 빈혈로 시달리고 있으나 빈혈의 심각한 영향에 대한 인식은 아직도 매우 낮은 편이라고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했다.

WHO는 최근 수년간 세계 각국에서 이뤄진 5백여건의 연구결과를 종합 분석한 여성 빈혈에 관한 보고서에서 빈혈은 오늘날 가장 빈번하면서도 가장 소홀히 취급되고 있는 영양실조의 한 증상이라고 지적하고 특히 가임연령층의 여성, 그중에서도 임신부 및授乳母들에게서 매우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적으로는 남아시아 임산부의 75%가 빈혈로 나타나 유럽과 北美(17%) 등 선진지역에 비해 극심한 대비를 보였으며 지역에 따라서는 가임, 불가임을 막론하고 전체 여성의 5%가 중증을 보여 이로 인한 심장병 등의 원인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다수인 것으로 보고됐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전체 여성의 40% 가량이 만성빈혈로 나타나 임신 중 및 분만시 사망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으로 우려됐으며 실제로 전세계 여성 가운데 빈혈증세와 관련, 임

신이나 분만 중 목숨을 잃는 숫자가 연간 50만명에 이른다고 WHO는 보고했다.

이 보고서는 정상적인 건강 여성과는 달리 빈혈 여성의 경우는 2백50cc의 피를 흘려도 치명적이라고 덧붙였다.

노인성 치매, 여자가 남자보다 잘 걸려

치료가 불가능한 뇌질환인 알츠하이머病(노인성 치매)은 남자보다 여자가 걸릴 확률이 훨씬 크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영국의 의학전문지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 최신호에 발표된 한 연구보고서는 스코틀랜드에서 1974년부터 1988년에 걸쳐 40~64세의 初老性 치매환자를 조사한 결과 여성은 10만명당 52명, 남성은 10만명당 28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조사결과는 여성이라는 것 자체가 알츠하이머병의 위험인자임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문제는 그 이유가 무엇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치매란, 생각하고 배우고 기억하고

이치를 따지는 능력이 점진적으로 쇠퇴하는 질병으로 이중 절반 또는 3분의 2의 경우가 노인성 치매이다. 이 병은 조기진단이 어려우며 나중에 사망한 뒤 검사에서 사망원인이 치매임이 밝혀지는 경우도 있다.

치매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발병률이 크게 높아진다. 40~65세의 치매발병률은 1천명당 1명미만인데 비해 80세가 넘으면 5명에 한명 꼴로 발병률이 갑자기 높아진다.

여자, 심장발작 위험성 높다

70세 이상의 미국여성들은 같은 나이의 남성들보다도 심장발작을 일으킬 가능성이 더 높으며 이에 따라 사망할 확률도 더 높다고 존스 홉킨스 의대의 한 연구원이 밝혔다.

니샤 찬드라교수(女)는 최근 미심장학회 회의에 제출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 자료를 놓고 볼 때 여성과 심장발작을 다루는데 더 많은 조심성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8백91개 병원의 11만3천1백6명 이상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 연구결과, 여성들은 가슴의 통증을 느낀 때부터 심각한 심장이상으로 발전하기 전 4시간 동안의 최적의 치료기간에 치료를 받은 비율이 남성이 73.6%인데 비해 67.6%로 보다 낮게 나타

났다.

찬드라교수는 이에 따라 의사들은 여성환자가 이상한 징후를 상담해 올 경우 보다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찬드라교수는 그러나 모든 연령층의 여성들은 흡연, 기름진 음식, 운동부족현상을 가져오는 앉아서 지내는 생활 스타일 등 심장발작을 유발하는 위험요소들에 보다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찬드라교수는 특히 여성들은 자신들이 심장발작을 일으킬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하며 심장발작이 일어날 경우 남성들 보다도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생활양태를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최근의 연구들은 심장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여성들이 남성들과는 다른 징후로 고통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찬드라교수는 말했다. 찬드라교수는 예컨대 여성들은 가슴과 왼쪽 팔 아래서 느끼는 지독한 고통보다는 보다 지속적인 고통이나 희미한 불쾌감 같은 것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㉔**

